

◆ 정부시책 ◆

수입선 多邊化 품목 일부 해제

통상산업부는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98년 1월 1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현재 113개 품목에서 88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품목중에는 1천cc 이하의 소형자동차(경차)와 1천cc 이하 소형승합차, 1천cc~1500cc 지프형 자동차와 모터싸이클(50~250cc),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직물날염기, 초음파영상진단기,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0M/T),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수확·탈곡 겸용기,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등 주요 중공업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 輸入先다변화 해제대상품목(전기관련)

HS	품 목 명
8502 20 1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통산부는 금년 1월부터 해제되는 이들 품목은 수출비중이 크거나 국산화율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내수시장 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입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 수입선 다변화 품목(전기관련)

HS	품 목 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mm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0 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8516 60 2000	
8536 20 0000	
8536 50 4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승인기관

승 인 기 관	생 산 기 술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목 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공업기반기술사업 2,900억 支援

정부는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등 670여개의 기
 금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벤처기업 술개발과제에 대해 2,904억원을 지원할 계

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등 5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통산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금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기술개발자금 100억원을 비롯,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총 2,904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조기실용화가 가능하고 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대체가 기대되는 국산화시급기술을 2~3년의 단기간내에 개발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892억원을,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핵심요소기술, 핵심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5년내에 일괄 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7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차세대자동차·주문형반도체 등

2천년대에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에 685억원을, 중형항공기·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등 우주항공기술개발사업에 282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4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로 경기·대구·경북·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각각 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해는 개소당 16.6억원(경기도 17억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개발의 하부구조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이 총결집하는 벤처기업 창업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상산업부는 61년이후 정부의 주도로 추진해 오던 KS규격의 표시허가 등의 산업표준화 업무를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2일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동법률의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금

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간 정부의 권한으로서 국립기술품질원,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던 KS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업무가 법에서 민간 인증기관의 고유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임 및 위탁규정에서 동 업무를 삭제하고 민간주도의 산업표준화 체제에 부응하도록 KS표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민간표준화 전문단체인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함(안 제34조).

-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산업표준이 산업기술발전의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체계적인 산업표준화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5년마다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 2).
- 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 6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산업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 2).
- 산업표준이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간부로부터 생산현장의 말단직원까지 전종업원에 대한 표준화의 인식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산

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경영책임자교육, 경영간부교육 및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으로 구분하고, 인증받으자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기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기관의 명칭을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에서 통상산업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공청회 및 청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및 제30조).

이와 같이 금번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간 정부주도로 산업표준화 업무를 경직되게 운용함으로써 민간의 참여기반이 미약하고 국제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의 탄력적 대응이 미흡한 바 있었으나, 민간의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일반 범용제품 위주의 KS 규격에서 벗어나 물류, 환경, 정보통신, 신소재 등 신기술·신수요 분야에 대한 표준의 확충을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는 민간중심의 산업표준화 추진이 가능하게 됨.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D/B구축

통상산업부는 외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법규 제도 조치 관행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장벽이 되거나 애로가 되는 사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97. 12. 17부터 운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통산부가 이번에 D/B로 구축한 것은 지난해 6월에 발굴한 사례 53개국 220건이다.

통산부가 개발, KOTRA의 협력을 얻어 운용하게 되는 D/B는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직접 투자 등 해외영업 활동에서 겪고 있는 외국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통상활동 지원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산부는 이번에 구축한 D/B는 장벽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사례를 별도로 구분하여 국가별 장벽유형별 소관부처별 사례발

굴년도별로 열람과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우리 업계나 관련단체가 해외영업 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어느 때나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채널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고 있다.

통산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장벽사례의 발굴과 해결내용을 이 D/B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며,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이 수집한 200여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D/B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인터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직접 「외국의 무역 투자장벽 D/B」웹사이트 주소 <http://www.kotra.or.kr/FTB/>로 접속하면 무료로 등록 즉시 ID 및 패스워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外國 전기전자제품 형식승인 획득 증가

전기·전자제품분야 외국 유명브랜드 업체들의 국내 형식승인 획득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소니와 같이 직접 형식승인을 받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필립스(Philips), 블랙앤드데커(Black·Decker), 로버트보쉬(Rovert Bosch GMBH) 등 모두 24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외국 제조업체의 국내 형식승인 획득이 이

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5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전기용품 제조업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외국 제조업체도 직접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7년 5월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필리핀 소재 APC 코퍼레이션(무정전전원장치) 등 5개 업체이다.

▲ 형식승인 획득 외국 제조업체 현황(전기관련)

업 체 명	공장소재지	허 가 품 목	등록일
BLACK & DECKER INDUSTRIAL S.P.A	이탈리아	전동공구	95. 3.20
"	영국	전동공구	95. 3.20
SHIN-ETSU ORIEZ CORP.	일본	직류전원장치	95. 5.31
SINO-AMERICA ELECTRONICS CO.	대만	직류전원장치	95.12. 1
SINO-AMERICA ELECTRONICS CO.	중국	직류전원장치	95.12. 1
쌍태전자(유)	중국	꽃음플러그	96. 6.20
ROBERT BOSCH GMBH	독일	전동공구	96.12.11
SCINTILLA AG	스위스	전동공구	96.12.11
DELTA ELECTRONICS INC.	대만	직류전원장치	96. 7.15
DELTA POWER SHART LTD.	중국	직류전원장치	96.10.23
DELTA ELECTRONICS(THAILAND) PUBLIC CO., LTD	태국	직류전원장치	96.10.23
D.P MEXICANA S.A DEC. V	멕시코	직류전원장치	96.12.21
BLACK & DECKER ASIA	싱가포르	전기드릴	97. 8.30
APC CORPORATION	필리핀	무정전전원장치	97. 7.21
"	아일랜드	"	97. 7.21

'98 중소기업 예산 조기 집행 계획

'98년도 중소기업 예산으로 잡힌 1조7,045억원이 1분기중에 전액 배정돼 조기 집행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한결 쉬워지며,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정부 지원자금을 빨리 받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전액을 금년 1분기중에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위한 보증재원(4,600억원)과 받을 어음의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예방을 위한 어음보험기금(1,000억원)으로 총 5,6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보증재원용으로

2,4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대위변제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500억원에서 4,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들 보증기관은 재원의 20배까지 중소기업 보증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생산자동화 등 구조개선자금(1,122억원)과 지방 중소기업의 시설개체자금(3,111억원) 등 총 8,695억원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